

# 주간기도정보

2024. 10. 2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음이라”

‘동성애 확산에 기독교인이 무분별하게 동참해선 안 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발표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 확산에 기독교인이 무분별하게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의 동성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아주 잘못된 판결이 결국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일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지난 10일부터 나서서 동성 커플 22명에 대하여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동성

간 결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결국은 법의 보호 속에서 지켜온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는 책동으로 보인다”며 “동성애자나 동성 간 파트너로 지내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 있다는 것과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렇듯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를 뒤 흔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근원지”라며 “또 이들에게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15대 정권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 간 결혼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낙태, 인권, 차별금지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파괴하고, 생명을 살상하며, 더 나아가 가정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교회의 존립에 악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잘못된 흐름이 있게 된 것에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이것에 동조하는 진보 성향의 기독교인들의 동참이 문제”라며 “이들은 마치 타락한 도덕 의식인 마른 장작에, 동성애라는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 옹호를 하면서 반대로 동성애 반대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은 뜻 있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이런 악한 현상들을 물리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날’은 매우 긴박한 필요성을 가진다. 지금 전 세계는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고,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시련과 도발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도덕은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에 거리까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인간의 가장 기본인 양심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사회 구성원 서로 간에 질서를 지키고, 피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법률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역할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큰 사명이 되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점”이라고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데살로니가후서 2:13-1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요한계시록 18:4-5)**

하나님, 입에 담기도 부끄러웠던 동성애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넘어 동성결혼 법제화를 주장하고 반대자를 차별금지법으로 억압하려는 상황을 보옵소서. 거센 폭풍 앞에 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서야 하건만 도리어 옳은 것을 말하기 꺼리고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며 동성애 옹호의 편에 선 기독교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알게 하사 세상의 죄에 참여치 않고 불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긴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악한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께 돌아오라”

**북, 우크라이나전에 특수부대 1만 2천 명 파병...1천 500명 이미 러시아로**

**북한의 첫 대규모 지상군 파병...조만간 2차 수송 예상**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환경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의 북핵 문제 핵방관 역할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고, 한러관계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을 첨단군사 기술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상군 대규모 해외파병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대거 공급하긴 했지만, 대규모 정예병력

파견은 지금까지의 군사협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는 것으로 전해진 11군단은 ‘폭풍군단’으로도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다. 우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성격은 비슷하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폭풍군단’ 예하 부대로는 경비병 여단과 항공 육전 단, 저격여단 등 10개 여단이 있고, 전체 병력 규모는 4만-8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만 2천여 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수부대원 1천 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급부도 우려된다. 북한이 인명 손실의 위험이나 대외적 비난의 부담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도 지금까지 무기를 받는 대가로 건넬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군사기술 등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다탄두 유도화 기술 개발을 러시아가 도울 수도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 군사 정찰위성 관련 추진체-위성체 기술 등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병 자체가 갖는 상징성, 러시아와 공조해 전투를 치른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면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대가를 반대급부로 줘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내세워 북한의 도발 행태가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동맹과 북·러동맹의 대결 구도가 한반도에 선명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하지 못했던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우리에게겐 위협이 되는 요소다.

다만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해외로 빼낸 만큼 단기적으로는 남측과의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재발시 보복하겠다’며 당장은 상황을 관리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 것도 해외파병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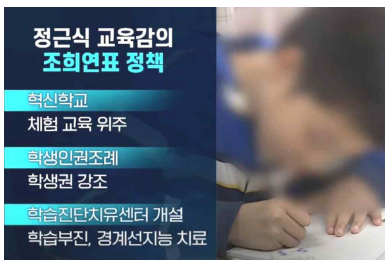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 하시나이다(시편 5:4-6)**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요엘 2:13)**

하나님, 전쟁으로 인한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는 러시아와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북한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마음으로 짝하여 도모를 서슴지 않는 두 나라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진노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소서. 한반도와 세계 안보가 불안한 위기의 상황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몸 된 교회가 깨어 일어나 인애가 크신 주님께 마음을 찢고 나아오게 하소서. 주여,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내 형제요, 자매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악한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계시하시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이름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학생인권조례 옹호 진보 교육감 체제에 교계 우려**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 실을 전망



16일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자 교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정 당선인이 친동성에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다.

다만 기독교 자율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할 때 해법 모색에 대한 기대감도 엇보인다. 정 당선인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평가된다.

남은 임기인 2년간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정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하면서 야권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지난 10여 년간 열매가 좋지 않았다”면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인권조례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성오염 교육이 이뤄져 학원 내 성폭력이 11.3배 증가했다. 학원 내 성적 윤리가 얼마만큼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추락의 현실도 지적됐다. 이 대표는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의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다음세대를 심각하게 경도시키고 아이들을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교계는 학생인권조례 존치 및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공동대표는 “유사한 조례 및 법안을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조례 폐지를 뒤집는 행태가 있다면 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 곳곳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5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28조 1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또,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며 “제16조 3항의 1은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로새서 2:14-15)**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언 19:20-21)**

하나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교육계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적 윤리를 파괴하는 교육을 옳다고 말하는 교육 지도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간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파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와 가정 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 자녀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다음세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